2023 VOL. 99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뉴스레터입니다.

www.cyber.ms.kr | www.cyber.hs.kr

방송통신중·고등학교 U-반딧불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U-반딧불
2023 VOL. 99

01 특별기고

여러분들의 꿈에 다가가기 위한 한걸음,
그 열정과 도전을 늘 응원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황은희 소장」 06

샘과 신명이 있는 만학도 소년소녀 이야기!
「경원중학교 김동률 교장,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 부회장」 08

배움의 열정으로 세상을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진주고등학교 정의창 교장,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부회장」 10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활동 소개 13
「강릉제일고」방송통신고등학교 50주년 기념
강릉제일고 부설 방송고 인터뷰 촬영 • 장서윤 기자 13
「전남여고」1학기 지필고사 평가 우수상 수여식 • 김순례 기자 15
「천안중앙고」교통 봉사 • 유시현 기자 17
「상동고」전교생이 함께한 꿈이 영그는 "체험 학습 현장" • 이순호 기자 19
「경남여고」즐거운 소풍날 • 박정순 기자 21
「화명중」소풍과 수학여행 이야기 나도 이제 할 수 있다 • 김영조 기자 23
「제주제일고」제10회 방송통신고등학교 총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 • 김혜경 기자 25
「남춘천중」우리 학교 학예 발표회 행사 • 이순세 기자 27
「광명중」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 • 곽배숙 기자 29
「춘천고」제42회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 최동순 기자 31
「원주고」2024년 회장, 부회장선거 • 정선미 기자 33
「홍성여중」교복 입고 졸업사진 찍었습니다 • 이은순 기자 35

03
아름다운 만남

반갑다! 친구야 38
「경원중」 의좋은 오누이와 시누 올케 사이 • 노순민 기자 38
「홍성고」 미술에 남다른 재능이 많은 학우님을 소개합니다 • 송기은 기자 43

감사합니다! 선생님 45
「대구고」 '청춘 극단' 담당 교무부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 엄윤숙 기자 45

04
우리들의 이야기

시 49
「순천고」 사랑합니다 • 박순분 학생 49
「동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선생님과 나 • 배창환 기자 50

수필 51
「춘천고」 우리 부부의 행복도전 • 최동순 기자 51
「경원중」 지켜지지 않는 배려석 • 노순민 기자 53

05
함께 성장하는 학교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10주년 축하 메시지)

「아현중」 방송통신중학교 10주년을 축하드리며 • 김선옥 기자 56
「진주고」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김두봉 기자 58
「경남여고」 방송통신중학교 10주년을 기념하여 • 박정순 기자 62
「동래고」 방송통신중학교를 응원합니다 • 배창환 기자 66

06
2023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대상 수상작 및 수상소감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 69

「홍성여중」 문예(시) - 청소 • 구본례 학생 69

「광명중」 문예(수필) - 맛 • 김이영 학생 70

「화명중」 서예(한글) • 원비선 학생 72

「수원제일중」 서예(한문) • 윤계열 학생 73

「경상중」 회화(수채화) • 신주연 학생 74

「경상중」 회화(소묘) • 하지연 학생 75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76

「춘천고」 문예(시) - 웃음과 울음(옹이꽃) • 최동순 기자 76

「홍성고」 문예(수필) - 선생님 • 이경옥 학생 77

「충주고」 서예(한글) • 박정옥 학생 79

「천안중앙고」 서예(한문) • 송준형 학생 80

「서현고」 회화(수채화) • 박경임 학생 81

「경남여고」 회화(소묘) • 정수연 학생 82

「수원여고」 캘리그라피 • 조정애 기자 83

07
센터 소식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소식 85

2023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개최 85

2023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종합상담 담당자 하반기 역량 강화 교육 실시 86

2023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가 제작 및 배포 86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10주년 기념

「2023년 방송중·고 연구·사업 성과 포럼」 개최 87

01

특별기고

여러분들의 꿈에 다가가기 위한 한걸음,
그 열정과 도전을 늘 응원합니다. ---------- 06
-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황은희 소장

샘과 신명이 있는 만학도 소년소녀 이야기! ---------- 08
- 경원중학교 김동률 교장,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 부회장

배움의 열정으로 세상을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 10
- 진주고등학교 정의창 교장,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부회장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소장 인사말

여러분들의 꿈에 다가가기 위한 한걸음, 그 열정과 도전을 늘 응원합니다.

황 은 희 |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소장

전국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렘 가득한 새 학기 시작이 엊그제인데 벌써 올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은 어떠셨나요? 신입생, 재학생분들 일과 학업 가정을 병행하며 바쁘게 보내셨겠지만, 하루하루 소중한 학교생활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고 학창 시절의 좋은 추억을 만드신 한 해가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9월과 10월에는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가 대면으로 4년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전국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가움과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학예경연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경연에 임하는 모습, 같은 학교 학우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우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 학생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동하였으며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자긍심과 보람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가 되고 저희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도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학예경연대회 대상 수상작과 소감도 함께 수록되었으니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그날의 열정과 기쁨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방송통신중학교가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2024년 내년은 방송통신고등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배움에 대한 많은 분들의 꿈과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감사한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방송통신중학교 1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 분들, 좋은 교육을 위해 힘써주신 학교 선생님들, 시·도교육청 관계자 분들이 계셨기에 10년,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발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모든 구성원 분들이 이 영광의 주인공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꿈을 가진 보다 많은 분들께 더 다양하고 풍부한 배움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발간된 뉴스레터 'U-반딧불' 98호와 99호는 많은 학생기자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으로 입학식부터 졸업사진 촬영, 체험학습, 체육대회, 학예경연대회 등 전국 각지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소식과 학교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업으로도 바쁘신 와중에도 1년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신 학생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99호를 읽으시면서 잠시나마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다양한 학교생활과 따뜻한 추억들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2024년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2학년 학생 분들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분들은 졸업 후 새로운 곳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에 다가가기 위한 한걸음, 그 열정과 도전을 늘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 부회장 인사말

샘과 신명이 있는 만학도 소년소녀 이야기!

김 동 률 | 경원중학교 교장,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 부회장

전국에 계신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교장 김동률입니다.

은행잎과 단풍 등 여러 색깔의 낙엽들이 거리를 알록달록하게 물들이는 멋지고 아름다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잊고 배움의 길로 힘들게 발을 들여놓았었죠. 어떤 학생은 수줍은 미소와 함께 처음 학교 가는 날 가슴 설레며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살짝 숨어서 학교에 왔다고 하며 이렇게 학교에 오니 마음속에 봄이 오듯 온 세상이 환해진다고 하네요. 마산 무학산 자락의 마을에서부터 진해의 어떤 마을까지 경남의 곳곳에서 멀고 힘든 등굣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오는 다양한 모양의 꿈을 가진 학생들, 아침마다 학생회 학생들이 아침 인사를 건네며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을 반겨 아침을 맑고 밝게 해 주던 아름다운 마음씨가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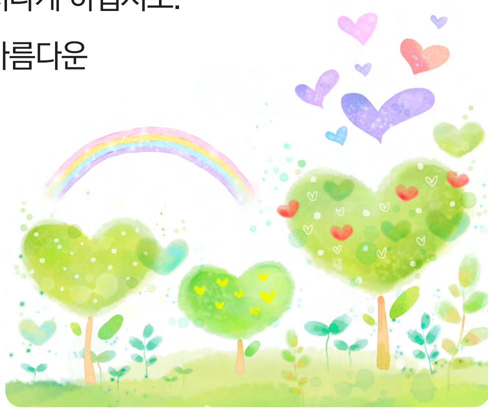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출석수업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공부하고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하나라도 빠뜨릴까 노심초사하며 진지하게 수업을 듣는 열정, 국어 시간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낭송하던 중 열무 삼십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신다고 하며 눈물이 흘러내려 읽기를

멈추기도 했죠. 꼬부랑한 알파벳 대 · 소문자가 구별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기도 했던 영어 시간, 수학 시간은 계산도 많고 공식도 많아 너무 어려워 눈을 감기도 하고요. 점심시간이 되면 급식소에 삼삼오오 모여서 제각각 가져온 음식을 급우들과 함께 맛있게 나누어 먹기도 했지요.

만학도 소년 소녀들의 정겨운 학교생활의 모든 활동이 보석이고 추억 덩어리죠. 남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한이 굽이굽이 넘실거립니다. 마디 굵은 손으로 눌러 써보기도 하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이자, 몇 번이나 감추면서 공부합니다. 배우고 또 익히며 행여 놓칠까 봐 조마조마했던 시간도 있었죠.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멈추지 않는 꿈같은 중학교 시절의 또 다른 그리움과 추억으로 남겠죠.

체육대회를 하는 날, 중학교 시절의 소년 소녀로 되돌아가서 줄도 당기고 공도 굴리고 달리기도 하는 장면들은 아침에 뜨는 해와 어스름한 저녁 무렵 물가에 비친 석양처럼 아름답습니다. 현장학습 때 눈길이 가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호기심과 아름다움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친구들과 멋진 추억을 많이 쌓았었죠. 학생들의 특기 · 적성 계발, 학교생활에 대한 성취동기 유발과 자긍심 함양을 목적으로 열렸던 전국 학예경연대회에서 열심히 준비한 문예, 회화, 서예 경연 부문에서 학생 여러분들을 즐겁고 기쁘게 했던 일들이, 다시 빛날 각자의 인생에서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지나갑니다.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여행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보다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지요. 숱한 역경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꽃피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꿈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재능을 가꾸어 가는 노력입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 자신의 삶을 원대한 꿈과 희망으로 넘쳐나게 하십시오.
세상은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자신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잘 가꾸고 사랑하십시오.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더욱 힘내세요. 다시 빛날, 학생 여러분 인생을 위하여 응원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여러분 파이팅!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부회장 인사말

배움의 열정으로 세상을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정 의 창 | 진주고등학교 교장,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 부회장

전국에 계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 정의창입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보내고 이제 제대로 등교해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온라인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업하시면서 이게 학교 다니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낯설고 힘드셨죠? 얼굴 보며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교실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질문하면서 모르는 것들은 질문을 하거나 어깨 너머로 눈치껏 배워가는 이것이 학교 오는 맛이 아닐까 합니다. 이 모습이 매우 그리우셨죠?

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뭐 엄청난 배움이 있을까 싶냐마는 그럼에도 참 신기한 것이 그 속에서 나날이 뭔가 달라지고 성장한다는 것이 교육이지 싶습니다. 벼 이삭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거나, 콩나물시루에 물 주는 것처럼 그저 오고 간 것인데 벼 익음이 다르고, 주어봤자 다 빠져나가는 물인데도 신기하게 콩나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세월 외에도 뭔가 있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신 것이겠지요? 그 뭔가가 너무 목마르고 아쉬워서 인생에서 이것 하나는 해 봐야겠다는 욕망을 안고 하신 그 결정을 잘하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면면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이 일천하여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에 함께하고,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에 다녀오면서 그렇게 환한 웃음, 그렇게 뿌듯해하시는 모습,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은 최근엔 참 낯선 모습들이었습니다. 그저 제때 학교 가고 졸업하던 학생들이 주어지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며 자기주장만 당당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에서는 옛 학교의 맛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는 즐거움, 나날이 조금씩 배워가는 기쁨.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가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주역 「문언전(文言傳)」에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적선지가 필유여경, 적불선지가 필유여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쌓는 집은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며 불선을 쌓는 집은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혼란기 선과 악이 혼재하고 세상이 흉흉하지만,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과 배움의 열정이 선으로 남아 그 에너지가 나비의 날갯짓에 멀리멀리 퍼졌으면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Chat GPT가 수업에 들어오면서 교실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여러분의 학습 환경도 달라지리라 봅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여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이 변화의 시기를 잘 타고 넘어 스스로 행복하고, 세상에는 선으로 나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진주는 비봉산과 남강의 기운이 좋습니다. 그 기운을 모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열정과 따뜻함, 환함이 나날이 더해지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봉황이 춤을 추며 노닐던 비봉산 지락에서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활동 소개 ---------- 13

학교 활동 소개 ❶

방송통신고등학교 50주년 기념 강릉제일고 부설 방송고 인터뷰 촬영

장 서 윤 | 강릉제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오늘은 다른 날보다 유난히 설레는 날입니다. 바로 학생기자 인터뷰를 하는 날인데요. 한국교육개발원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인터뷰 촬영을 해 주신답니다.

내년에 방송통신고등학교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이렇게나 오랜 역사가 있다니 정말 대단하고 그동안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그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고마웠던 점, 보람찼던 마음을 담아 열심히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인터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카메라와 사람이 많아 너무 긴장되었지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열심히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중간에 말을 더듬어서 다시 처음부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긴장을 많이 했지만, 옆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선생님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지금까지의 일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에 이 학교에 오기까지 많이 망설였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다시 다니게 된 학교에 많이 설레고 더 열심히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다른 일에도 신경을 쓰느라 힘든 날도 있었지만 이렇게라도 배울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학교에 나가

학우들을 만나며 수업도 같이 듣고 소풍도 가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네요. 학생기자 활동도 하면서 지난 1년간 우리 학교에 소식도 전하고 많은 추억들을 사진과 글로 남기게 되니 이것도 또한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이제 3학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생활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잘 마무리 하고 내년에도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배움과 추억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를 열심히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담임 선생님! 저희를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릉제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힘내고 앞으로 입학하실 학생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강릉제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장서윤 학생기자였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❷

1학기 지필고사 평가 우수상 수여식

김 순 례 | 전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첫 등교일이 엊그제 같은데 한 학기를 마치고 2학기 첫 등교일입니다.

방학이 지나고 오랜만에 학교를 나가니 설레고 학우분들과의 만남이 기대되는 날입니다. 항상 첫 단어가 붙으면 설렘이 따르는가 봅니다.

저는 한 학기 조기 졸업생입니다. 뜻 한 바가 있어 대학을 1년이라도 빨리 가서 배우려고 학습경험 인정제를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2점이 모자라 한 학기 밖에 안 되었답니다. 하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고 학우님들과도 헤어지기 싫고 학생기자로서 맡은 임무도 있고 해서 2학기에도 등교하게 되었답니다.

3학년 마지막 학기도 우리 선생님과 학우들과 지낼 수 있다니 기분이 좋고 이번 학기는 보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학기의 첫 등교일에는 1학기 지필고사 평가 우수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반마다 시상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도 상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반 학우님들의 시상 사진을 올려봅니다. 다들 축하합니다! 다들 얼굴도 아름다우시고 공부도 잘하시네요. 우리 학교 학우들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반에는 손미숙, 김재임, 김도희 학우님이 수상하셨습니다.

김재임 학우님은 마음이 고우신데 공부도 잘합니다. 평소에 학급을 위해 솔선수범을 하며 학우들을 도와주시는 분인데 공부도 열심히 하시니 제가 늘 응원하는 학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도희 학우님은 특히 수학을 잘합니다. 늘 수학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셔서 제가 부러워하는 학우님이십니다. 수상하신 세 분 학우님들 우수상 수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들 교탁 앞에 나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니 멋있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세 분이 상 받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더욱 열심히 학교생활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저도 2학기를 열심히 공부하여 상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되는 하루입니다. 전국에 계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우분들! 2학기도 힘내시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 봅시다! 파이팅!

이상 전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김순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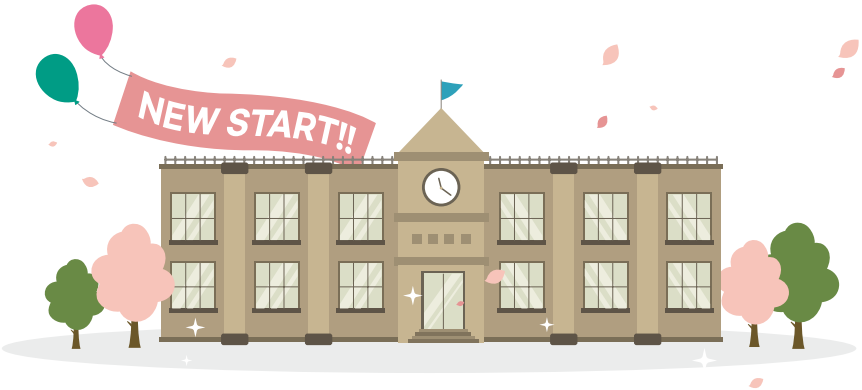
학교 활동 소개 ❸

교통 봉사

유 시 현 | 천안중앙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오늘은 하늘도 정말 파랗고 마음도 화창한 가을날입니다. 오늘은 천안중앙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출석수업일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등교일 아침마다 열심히 교통 봉사하시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조를 나눠 돌아가면서 교통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교통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매번 우리 학교 학생기자로서 지나가면서 같이 사진 찍고 열심히 기사 제보를 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교통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다들 아침마다 이름표를 걸고 있어 부러웠는데 오늘은 제 이름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목에 걸면서 제 자신이 너무 뿌듯했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하루 오고 가는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안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교통 정리를 하였습니다. 교문 앞에 있으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우분들이랑 즐겁게 아침 인사도 하고 선생님의 응원을 받으며 힘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고 교문 풍경을 둘러보며 평화로운 주말 아침에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날씨도 좋아 지나가는 교장선생님, 친구들, 선생님도 함께 찰칵!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금 지났지만 학교에 예쁘게 피었던 꽃도 봤습니다. 아침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라 오늘 하루는 활기찬 학교 등교일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 봉사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뿌듯하고 보람찬 활동입니다. 오늘 봉사하면서 매번 열심히 교문 앞에서 봉사하시던 학우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날에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열심히 교통 봉사를 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학우들이 천안중앙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 학교를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루에 시작을 함께하며 아침부터 교통 봉사로 고생해 주신 회장님과 학생분들께 감사합니다. 전국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기자님들도, 아침에 교통 봉사하시는 분들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천안중앙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유시현이었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❹

전교생이 함께한 꿈이 영그는 “체험 학습 현장”

이 순 호 | 상동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1월 5일 경기 상동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전교생이 서울 구로구 항동의 푸른 수목원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심술을 부렸지만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행복했습니다. 비에 젖은 나뭇잎들이 웅성거리는 것 같네요. 비가 와서 느낄 수 있는 운치와 묘한 울림에 감정이 요동칩니다.

수목원에 도착해서 잠시 나이도 잊은 채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간 듯 선후배들과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 컷이라도 더 담기 위해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었답니다. 노란 우산, 빨간 우산을 쓰고 수줍게 포즈를 잡아봅니다. 해님마저 중간중간 얼굴을 내밀어 주시니 색다른 행복이 느껴집니다.

학우들은 잠시 잠깐 비가 멈춘 사이에도 추억을 눈으로 담고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항동의 푸른 수목원 저수지에는 나무테크 길에 핀 예쁜 연꽃과 갈대들이 있습니다. 싱그러움의 연잎이 마음을 설레게 하네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피해 잠깐 정자로 피했습니다. 마냥 쉬면서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송주호 선생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몸으로 말해요’ 게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한 줄로 서서 한 명이 몸으로 표현하고 다음 사람이 그게 무엇인지 맞히는 게임입니다. 다들 어찌나 설명을 재밌게 잘하는지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모범생들이 재밌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다들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구동성’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다들 게임에 이기고 싶어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재밌네요.

잠깐 쉬고 난 후 송주호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다들 상품이 있다는 소식에 열정을 불태우며 열심히 찾았습니다. 보물찾기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보물이 어디 있을까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며 사이좋게 추억을 쌓았습니다. 철길도 사이좋게 걸어

보고 우산을 쓰고 정답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보물 찾기가 끝나고 어떤 상품이 있을까 기대를 가득 안고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이 선물은 송주호 선생님께서 밤새워 예쁘게 포장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재밌는 추억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 주신 송주호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보물로 우리 선생님의 예쁜 마음씨와 학우들과의 추억을 찾은 것 같네요.

열심히 게임을 하고 나니 슬슬 허기가 져서 준비해 온 과일을 먹었습니다. 우리 총동문회 선배님께서 전교생 모두에게 간식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회장님이 현 회장님께 건네준 간식비로 선후배 간의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먹으며 학우들과 도란도란 재밌는 이야기도 하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풍은 갑자기 쏟아진 비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상황을 대처해 준 1학년 2반 선생님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10대부터 배움의 시기를 놓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만났어도 "동병상련" 같은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건 "프로그램" 을 준비해오신 선생님과 전교생을 총괄 지휘하신 교무주임 선생님 덕분입니다. 간식비를 지원해 주신 총동문회 선배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꿈이 영그는 현장에서 서로서로 따뜻함이 될 수 있도록 관계를 노력한다면 경쟁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황혼이 되겠지 싶습니다. 먼 길 가려면 좋은 신발이 필요하듯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진정한 "벗" 이 되는 아름다운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에 계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분들도 인생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상동고 부설 방송통신 고등학교 학생기자 이순호였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❺

즐거운 소풍날

박 정 순 | 경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경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소풍날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는 소풍인지라 얼마만의 소풍인지 잠도 오지 않고 마음은 설레고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토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어서 마음을 졸이며 "비야 오지 마라. 일요일은 우리 학교 소풍 가는 날이란다."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다리에 쥐도 나고 가관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소풍날 하루 종일 날씨가 좋았습니다.

우리는 부산 시민 공원으로 소풍을 떠났습니다. 이곳은 예전 '하얄리아' 라고 불렸던 미군기지가 있던 자리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설치되었다가 2004년 한미정책구상 회의에서 부산에 반환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4년부터 부산시에서 공원으로 만들어 많은 시민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편히 쉬고 있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원에 국화꽃이 너무 소담스럽게 피어서 사진에 담아보았습니다. 꽃향기가 가득하니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네요. 주변을 둘러보니 가을이 어느새 살포시 소리 없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학우들과 좋은 추억을 쌓아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른 잔디밭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마음껏 수다를 떨었습니다.

학우님들이 집합 장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시간 관념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대단한 경남의 어여쁜 우리 학교의 꽃님들입니다. 이제는 스카프를 만들기 위해 체험 장소에 학우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원을 확인한 후 염색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지도해 주는 대로 열심히 만들어 봤답니다. 빨래하듯이 염색물 입혀서 빨랫줄에 말립니다. 스카프를 다 만들어서 집으로 가져갔지만 축축한 상태라 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조금은 덜 마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쫙 펴서 보니 염색이랑 무늬가 너무 예뻤습니다. 만드는 과정도 재미있고 참 좋았습니다.

모든 학우님들이 즐겁게 걷기도 하고 꽃 구경도 하고 도란도란 앉아서 수다도 떨고 맛난 점심도 먹고 예쁜 실크 스카프 직접 염색도 하고 무늬도 만드는 체험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쩜 놀 때는 시간도 후딱 잘 가는지 공부할 때는 한 시간이 열 시간처럼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정말 모처럼의 즐겁고 행복한 나들이였습니다. 노는데 빠져서 사진을 제대로 찍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더 많은 사진을 남겨 훗날 추억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밤이 깊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학우님들 편안하고 고운 밤 되십시오. 이상 경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박정순이었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❻

소풍과 수학여행 이야기 나도 이제 할 수 있다.

김 영 조 | 화명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풍날입니다. 전 학년이 같이 갔는데, 3학년은 수학여행 겸, 또 졸업 여행 겸 그리고 졸업사진 촬영 겸이었고, 1, 2학년들은 가을 소풍 겸, 현장체험학습이었습니다. 다행히 한 학생도 늦지 않고 학교 운동장에 집합하였습니다. 참석 인원이 모두 탑승 완료! 드디어 출발합니다! 참석 학생 219명, 인솔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까지 아마 230명이 훨씬 넘을 것 같았습니다.

들뜬 기분에 커진 목소리가 차 안을 꽉 채울 때쯤, 더 큰 마이크 소리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며 다시 한번 더 오늘의 주의 사항을 말씀하시고 안전벨트 착용을 재차 확인하십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잘 다녀오기를 기대하면서 애쓰시는 모습에 스스로도 '안전사고는 나부터 조심해야지'라고 마음에 새깁니다. 좀 많이 몸이 아팠던 저는 선생님을 더 힘드시게 하게 될까 봐 속으로 염려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떠나면서 하하 호호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옆 친구와 다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소 가까이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던 우리들이었기에 3학년인데도 아직도 얼굴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옆 친구와 재밌게 조곤조곤 얘기가 좀 더 깊어지려는데, 9시 30분 벌써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바람 살랑거리는 날씨도 매우 좋고 하늘은 쪽빛처럼 눈부시게 파랗고 또 구름은 톡톡 갓 터져 나온 목화 솜인양 몽실몽실 생기롭게 느껴집니다. 오늘 유독 기분이 좋아서일까? 무엇이든 다 좋게만 보입니다.

입가엔 모두가 "김치, 치즈"를 외치는 듯하며, 첫 번째 장소로 입장했습니다. 바로 천연 숲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가을꽃들은 형형색색의 나뭇잎들과 꽃들이 자랑하듯이 곱기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이 순간에 정말 하나같이 소년, 소녀이었습니다.

단체 사진도 찍고 각자가 사진 찍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경치가 좋고 나쁨이 아무 상관이 없는 듯했습니다. 그냥 모두가 신나고 좋아합니다.

너무 신나서 나이도 잊고 턱관절이 아프도록 웃다가 체력에 비상등이 켜질 때쯤 버드 파크와 동궁원 등을 돌아보고 감탄사가 줄어들 때를 맞춰서, 멋진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움직였습니다. 그 후 경주의 랜드마크인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몇 번을 봐도 볼 때마다 더 신기하고 유구한 우리들의 빛나는 문화유산입니다. 불국사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석굴암과 함께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유적과 유물이 많은 경주는 돌아볼 곳이 너무 많지만, 우리들의 소풍과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은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오늘을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해서 좋았습니다. 평생 추억에 남을 행복한 한 장면을 잘 그렸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주로 경주로 수학여행를 갔었는데, 저 혼자만 사정이 생겨서 못 갔었습니다. 모두가 여행을 갔다 와서 수학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어서 듣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고 그 후 지금까지 동창들이 가끔 수학여행 이야기를 할 때면 늘 싸한 쓰린 속이 내밀곤 했죠. 이제 나도 수학여행 가서 즐거웠다고 한마디 할 수가 있겠네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우리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 감사합니다!

이상 화명중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김영조
학생기자였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❼

제10회 방송통신고등학교 총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

김 혜 경 | 제주제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추석 대보름달의 기운을 받고 긴 연휴를 보내고 나니 제10회 방송통신고등학교 총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총동문회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대선배님을 만나 뵐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대선배님들과 함께 신나는 하루가 되었고,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동문회는 펜데믹 속으로 3년의 공백기를 끝내고 모교인 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체육대회라 그런지 다들 들뜬 모습입니다.

교장 선생님, 전국 방송고 총동문회 회장님 그리고 제주 총동문 선 회장님 등 여러 축하 인사단이 모인 앞에서 체육대회 시작을 알리는 축포가 터졌습니다! 선수 대표가 선서하고 체육대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백록, 청록 팀 대선배님들이 유니폼을 입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호팀은 선배님들이고 화랑팀은 재학생 임원들이었습니다.

경기에 앞서 개막공연이 열렸습니다. 선배님들이 민요, 한국 전통춤 그리고 난타 장구를 화려하게 개막공연으로 흥을 돋아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경품 추첨도 하여 재미를 더하였습니다. 당첨자가 나올 때마다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게 되네요.

오전 경기로 2인 1조 발 묶고 달리기, 링 던지기, 판 뒤집기 게임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응원하다 보니 배꼽시계가 밥때를 알리는 소리 꼬르륵~~ 배가 고프네요. 점심은 맛있는 뷔페가 준비되어 있었고 특별 메뉴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풍선 탑 쌓기'를 했답니다. 팀 단체로 경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단합의 힘을 보여주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이어서 저마다 자기의 끼를 자랑할 수 있는 노래 자랑 순서가 되었습니다. 다들 어찌나 노래를 잘하고 끼가 많으신지 무대를 재밌게 즐겼습니다. 이제 체육대회 모든 경기가 끝나고 결과 발표만 남았습니다! 두구두구- 결과는 재학생이 2등을, 화랑 선배님 팀이 1등을 하였습니다~ 다들 축하합니다! 열심히 경기하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 뜻깊은 시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님과 제가 2학년 장으로 있어 오늘 멋진 이야깃거리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주제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김혜경이었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⑧

우리 학교 학예 발표회 행사

이 순 세 | 남춘천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오늘은 우리 학교 학예 발표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며칠 전부터 신나게 즐길 생각 하니 하루하루가 설렜는데요. 학예 발표회 행사는 전시회를 하고 인바디, 영어 회화, 만들기, 노래교실 등 다양한 수업도 함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주변에 형형색색의 풍선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학교 풍선아트 동아리의 작품인데요. 동아리 임원진이 토요일부터 나와 풍선을 만들어서 꾸몄답니다. 복도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본인이 손수 만든 작품들을 갖고 와서 진열하였습니다. 다들 본인들 작품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소풍, 체육대회 등 추억이 담긴 사진들, 귀여운 인형을 만들어서 전시회도 했습니다. 멋진 손 글씨, 예쁜 옷도 제작하여 전시한 작품도 보이네요. 솜씨가 좋은 분들이 많네요. 숨은 재주가 끝이 없나 봅니다.

복도의 전시회를 즐긴 후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한 체중 만들기 수업은 국제괄사요법 학원 임소정 원장님이 오셔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자세부터 운동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여기저기 뭉친 데도 많고 뻐근했습니다. 그러나 몸을 조금씩 움직이니 피로가 풀리네요. 이 수업은 일상생활에서 혼자 따라기 좋은 자세가 몇 가지 있어 유용한 수업이었습니다.

영어 회화는 원어민 생활영어 강사도 오셨는데 이 수업을 듣고 배우는 분들이 제일 많았답니다. 다들 따로 학원에 다니는지 정말 유창하게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도 열심히 배워서 술술 말하는 회화 실력을 갖고 싶습니다.

옆에 교실에 가보니 노래를 배우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들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열심히 부르셨답니다. 평상시에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학예 발표회에서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늘은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았던 정말 알찬 하루였습니다. 발표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남춘천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이순세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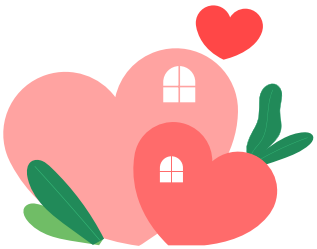
학교 활동 소개 ❾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

곽 배 숙 | 광명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경연대회를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다시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천안 수련관에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있었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열심히 경연을 준비했답니다.

들뜬 마음으로 경연대회장을 도착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모여 북적북적하였습니다. 광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지역이 달라 만난 적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괜히 반가웠습니다.



이제 경연대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로에게 응원의 한 마디씩 하고 시, 수필, 기악 등 각자 참가할 경연대회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경연장에 들어가니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경연을 준비하고 있어 긴장되었지만, 스스로 격려하고 열심히 경연에 임했습니다. 경연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 아쉬움 마음이 들었지만, 경연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잠깐 헤어졌던 우리 학교 학우들도 열심히 경연을 하고 오느라 지친 표정들이 보이네요.

이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축제를 즐기러 갈 시간입니다. 강당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 소원을 담은 단풍나무도 만들고 재밌는 배경에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제 공연이 시작되어 자리에 앉아 관람하였습니다. 노래, 시 낭송,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MC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실 때는 너무 신나 자리에 일어나 학우들과 신나게 춤을

쳤습니다.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즐기면서 공연을 보게 된 것이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것도 있고 학교와 가정을 오가면서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공연을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우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축제를 즐기고 춤을 추니 감동이었습니다.

다음날은 시상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들 본인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한껏 기대를 부풀고 강당으로 모였는데요. 수필에서 저희 학교 학생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짝짝짝! 3학년 1반 반장님이신데 대상을 받았어요. 아침에 차를 타자마자 용이 불을 뿜으며 하늘을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고 하시더니 대상을 받으시는 것 보니 용꿈이 좋은가 봅니다. 경연 전에 책도 100권을 읽으시니 그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수채화는 특별상, 수필은 장려상, 시 부문에서 전교회장님이 은상도 받았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쉽지만 학예경연대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 꿈 같은 시간을 뒤로 한 채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겠지요.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회장님이 커피를 사주셔서 카페에서 선생님과 커피 한 잔 했습니다. 심태석 회장님! 커피 잘 마셨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진짜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틀 동안 경연대회 참가한 학생, 선생님,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를 편하게 인솔하여 경연대회에 참석시킨 서경아 선생님, 안영주 선생님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 광명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곽배숙이었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⑩

제42회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최 동 순 | 춘천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제42회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가 10월 21일 화려한 막을 열고 22일 시상식과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틀 동안 경연을 하면서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열리지 못하였던 경연이 4년 만에 대면으로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예, 서예, 미술, 음악, 영어 말하기 등 부문별 많은 학생이 참여하였는데요. 찬바람에 놀란 가슴 다독이며 후끈하게 달군 열띤 경연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에 빛나는 나의 꿈'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경연은 오후 1시30분 개회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학교 학우들과 모여 기념 촬영도 찍었습니다. 3시 30분부터 각 경연장에서 열띤 경연을 벌였습니다. 학우들과 서로 응원을 한 후 저도 경연장에 들어가 열심히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한창 온 열정을 다하여 경연에 임한 후 저녁 7시 축제를 즐길 시간이 왔습니다. '빛나라 내 인생'이란 주제로 흥겨운 축하공연이 이루어져 모인 학생들의 마음을 후끈하게 달구어 내었습니다. 한자리 모인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는 흐뭇한 자리였습니다.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행된 수상식에는 문예 시 부문을 시작으로 각 부문 시상식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쓴 시 '옹이꽃'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우리 학교에서 맨 처음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저희 춘천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문예(시, 수필) 부문, 서예(한글, 한문) 부문 음악에 국악 부문 등 5개 부문에 참여하였고, 시 부문 대상은 3학년 최동순, 서예 부문 한글은 3학년 표계봉이 동상, 한문은 1학년 엄유섭이 동상, 음악은 국악 1학년 김현숙이 장려상 등 4개 부문에서 영예의 수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제42회 학예경연대회는 내 인생이 꽃처럼 활짝 다시 피어나는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함께 수상하신 전국의 수상자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색 단풍이 물드는 가을날에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함께 참여해 주신 전국 방송통신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행복을 나누던 시간들 감사드리며 수상하신 모든 학생분께 진심 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올 가을 학예경연대회장에서 춘천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최동순이었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11

2024년 회장, 부회장 선거

정 선 미 | 원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오늘 원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024년 회장, 부회장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유세자들이 등교하여 어깨띠를 두르고 교문 앞,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 쪽 후보자들을 위해 플랜카드를 들며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네요. 다들 열심히 플랜카드를 꾸미고, 온 힘을 다해 후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시끌벅적한 학교에 오랜만에 설레고 긴장되었습니다.

이제 투표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선거관계자들과 학교 임원진님들의 안내와 노력으로 질서정연하게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조퇴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 투표도 진행했습니다. 누구를 투표해야 할까 고민이 참 많이 되었는데요. 후보자들 모두 평소에 성실하고 학교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늘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우들을 돕는지라 '누가 되더라도 우리 학교를 잘 이끌겠지.' 라는 생각에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마음의 결정을 하고 투표대에 들어갔습니다. 개표 시간이 다가오자 다들 한껏 긴장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쟁쟁한 후보자들이었기에 개표 내내 엎치락뒤치락하며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1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선거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교와 학생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른 투표였지만 내년 한 해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학교를 위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원진 분들 모두 평소 학교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이라 내년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오늘 후보로 나오셨던 분들도 아쉬웠지만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선되신 회장, 부회장 모두 축하드리고 2024년에도 파이팅! 다 같이 열심히 나아갑시다. 이상 원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원성미였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⑫

교복 입고 졸업사진 찍었습니다.

이 은 순 | 홍성여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오늘은 홍성여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졸업사진을 찍는 날입니다. 3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홍성여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 원서를 접수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요. 학교 가는 날이면 그 누구보다 일찍 와서 교실 청소도 하고 배움과 학우님들의 익살스럽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시간, 날짜도 흘러가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느새 3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렇게 꿈에 그리던 교복을 입고 선생님과 교실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네요.

아침에 학교에 와서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교복을 입고 있으니 신기했습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입고 싶었던 교복을 입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중학교 수업날 평상시와 달리 교복을 입고 있으니 더 열심히 오늘 하루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학교 수업은 1~2교시가 체육 시간이었는데 1교시 반만 체육 수업을 하고 3교시에는 교복 입고 수업하자고 하였습니다. 3교시에 영어 수업하는 모습들인데 다양한 표정들로 수업을 듣고 있네요. 선생님 말씀에 쫑긋 듣는 학우님, 시험문제지 뚫어져라 보는 모습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핸드폰으로 검색하면서 수업듣는 모습들 다양하지요! 그러나 다들 오늘 교복을 입어 들뜬 마음과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은 하나였을 것입니다.

3교시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비록 몸은 중학생의 나이가 아니지만 마음만은 십 대의 마음으로 마음껏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답니다. '꿈에 그리던 교복을 입고 예쁜 모습 남겨야지!'하며 여기저기서 찍으며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으니 저마다 감회가 새로웠나 봅니다.

다들 같이 찍자며 여기저기 모여 포즈를 취하는 행복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5교시에는 야외에 나가 졸업사진을 찍는 시간입니다. 운동장에서 서서 한 명씩 사진을 찍기도 하고 단체로 모여 찍기도 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고 나서 달리기 하기, 일자로 서서 학교 건물과 함께 찍기 등 다양한 포즈들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쁜 교복 입고 사진 찍는 날인데 날씨가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덜덜 떨어 추위를 많이 타는 학생들은 바지도 입고 코트도 입고 찍었지요. 교복을 제대로 입고 찍고 싶었는데 옷을 껴입어 제대로 나오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교복을 입고 한껏 설렌 모습과 학우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행복한 모습은 사진에 잘 담겼을 것입니다.

12월 둘째주 하반기 시험이 끝나고 나면 1월 둘째주 홍성여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졸업하게 된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설렘을 가지고 교문을 들어서면서 '내가 이 학교를 언제 졸업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요. 벌써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한다니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네요. 교복을 입고 나니 학우들이 하나둘 그 옛날을 회상하며 이야기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왜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를 안 가르쳤을까?" 어린 시절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시절에 대해 속상함과 늦게나마 다시 배움의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늦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도 열의를 가지고 수업을 듣고 3년 과정을 무사히 마친 저와 저희 학우들이 대단하고, 고생했다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시간까지 교복 입고 수업하며 행복한 모습들에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마쳤습니다. 올해 졸업하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을 마치고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우분들도 힘내시고 무사히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딧불 선후배 기자님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홍성여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이은순이었습니다.

03

아름다운 만남

반갑다! 친구야 ---------- 38

감사합니다! 선생님 ---------- 45

의좋은 오누이와 시누 올케 사이

노 순 민 | 경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반갑다! 친구야 ❶ - 김원용·이춘자·김원자 학우

마산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2반 김원용(70세) 학우와 경원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2반 이춘자(65세) 학우는 부부이면서, 경원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1반 김원자(65세) 학우의 큰 오빠이고 큰 올케가 됩니다. 이 세 분은 같은 학교 동문이면서 선후배 사이로, 가족이 같은 학교 동문이 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오누이와 올케가 의좋은 형제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 김원용 학우와 이춘자 학우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화목한 가족들의 모습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기자 반갑습니다. 저는 경원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1반에 재학 중인 노순민 학생기자라고 합니다. 바쁘신 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소개하고 싶어 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학생 김원용 학생(오빠):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2반 김원용입니다. 이춘자 학우의 남편이자 김원자 학우의 오빠입니다.

이춘자 학생(올케):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용 학우의 아내이자 후배이고, 동기생인 시누이 김원자 학우의 올케 경원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2반 이춘자입니다.

김원자 학생(동생/시누이): 반갑습니다. 저는 원용 오빠의 동생이자 올케 언니와는 동기생이면서 시누이가 되는 경원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1반 김원자입니다. 가족이 많아서 인사가 한참 걸리네요.

기자 올케와 시누이와 오빠가 같은 학교 동문으로 다니는 게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어떤 계기로 같은 시기에 늦깎이 중학생이 되었고, 누가 먼저 학교에 가자고 제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생 김원용 학생(오빠): 예. 처음에는 아내가 먼저 제안을 해서 둘이 함께 학교에 접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송통신 중학교에 지원자가 많아서 대기자가 있던 시기라 연장자인 저만 입학을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2남 4녀 중에 첫째이고 자녀는 아들, 딸 남매가 있습니다.

이춘자 학생(올케): 저는 제가 먼저 제안해서 남편과 동기생으로 다니고 싶었는데 나이 때문에 가지 못하고, 지금 운영하는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서 3년 늦게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하 동문이고 김원자 학우의 큰 올케입니다.

김원자 학생(동생/시누이): 저도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을 늘 품고 있었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올케 언니의 권유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셋째인데 딸로서는 첫째 딸입니다. 저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기자 오누이와 시누이, 올케 사이가 남달리 우애가 깊어 보이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학생 김원용 학생(오빠): 비결이라면 동생들이 맏이인 저를 잘 따라주고, 특히 제 아내가 저보다도 시댁 식구들을 더 많이 챙겨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여건이 되지 않아 동생들을 더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한 것이 늘 아쉽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춘자 학생(올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서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라도 어서 커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고, 학교에 갔다 오면 남의 집 아기를 업어주고 밥을 얻어먹곤 했는데요.

아버지는 오빠만 공부시키고 저는 딸이라고 중학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방직공장에 취직해서 기술을 배우고, 야간 일하며 받은 월급을 모두 집으로 보내서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집도 사주었습니다. 가족은 좋은 것도 있지만 장녀로서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책임감 때문에 또 열심히

특별기고
꿈이 영그는 현장
아름다운 만남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성장하는 학교
학예경연대회 수상작
센터 소식

살았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하면서 힘든 시간도 보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살다 보니, 힘든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아들, 딸 결혼해서 잘 살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니, 가족이 많아 힘든 일도 있었지만 역시 가족이 많아서 행복하다는 걸 느끼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특별한 사랑과 가족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원자 학생(동생/시누이): 오빠라서가 아니라 저희 오빠는 동생들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남들처럼 공부를 했으면, 일용직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지도 않았을 것이고, 동생들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시절을 잘못 타고나서 고생만 했는데도, 동생들 먼저 챙기는 정 깊은 오빠가 고맙기도 하지만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 시절엔 돈도 귀했지만 바나나도 귀한 시절이었는데, 어려운 형편에 막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커다란 바나나를 사 와서 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시절엔 쉽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아니었는데, 오빠 덕분에 특별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집안에 큰 어른인 오빠와 올케가 중심을 잡고 가족들을 잘 품어 주니, 만나기만 하면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형제간에 다툼 없이 깊은 우애를 쌓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기둥이며 대들보 같은 오빠와 올케 언니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기자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거나 불편할 때도 있을텐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생 **김원용 학생(오빠):** 저는 그다지 큰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집사람은 좀 그런 게 있겠죠. 저는 아내와 함께 있어서 오히려 더 좋거든요.

이춘자 학생(올케):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살아서 정에 굶주렸는데, 남편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니 저도 남편과 함께 있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좋습니다. 서로 가난한 처지에 공부도 못했는데, 아웅다웅 살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못 봐서 그런지, 싸우는 가정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자 오빠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학교에 다니기 전과 다닌 후에 내 인생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세 분 모두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하실 생각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학생 김원용 학생(오빠): 저는 너무 내성적이라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남 앞에서 말도 잘 못했는데, 한 자라도 배웠다고 그런 것들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업을 접하지 않았을 때와 배움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 속에 묻혀 있다 보니 한마디라도 주워듣는 말이 있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니 어떤 말을 해도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대인관계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로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자 학생(올케) : 저도 물론 학교에 다니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진학도 물론 할 것이고, 여건이 된다면 대학에 가서 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남은 여생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김원자 학생(동생/시누이) : 저도 학교에 다니면서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예전과는 가치관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반드시 진학할 생각이고,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된다면 대학까지도 가보고 싶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예비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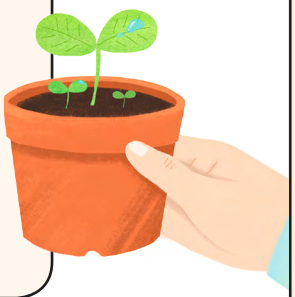
학생 김원용 학생(오빠): 학교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특별히 바라는 건 없는데, 예비 후배들에게는 무조건 학교에 입학해서 이 좋은 제도 안에서, 학창 시절에 대한 여러 가지 소중한 경험들을 꼭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춘자 학생(올케): 학교에서 너무나 만족스럽게 잘 해주시니까 학교에 바라는 것은 특별히 없는데, 오히려 그 보답을 하지 못해서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배들에게는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말고 꼭 잡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겠지만, 막상 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늘 다음 등교일이 기다려지기도 한답니다.

김원자 학생(동생/시누이): 저도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아 망설였는데, 올케 언니의 권유로 막상 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신다면 꼭 도전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기자 바쁘신데 시간 내주시고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분 모두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꿈 다 이루시고, 앞으로도 우애 좋은 오누이와 시누, 올케 사이로 화목한 가정 이루시길 기원하며, 늘 기쁘고 보람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우애 있는 가족의 모습을 취재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상 경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노순민이었습니다.

김원자·이춘자·김원용 학우님



미술에 남다른 재능이 많은 학우님을 소개합니다.

송 기 은 | 홍성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반갑다! 친구야 ❷ - 김말순 학우

홍성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미술에 남다른 재능이 많은 학우님이 있습니다. 2학년 2반 재학 중인 김말순 학우님을 소개합니다. 저와 홍성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재학 당시 학예경연대회를 통해 친해졌고, 그림을 잘 그려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김말순 학우는 2019년, 2021년 학예경연대회에 수상을 하실 정도로 미술에 재능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뷰를 통해 이 학우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학생 네, 저는 홍성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2반 김말순입니다. 인터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자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셨나요?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학생 예전에 평생학습관에서 미술교육 수업이 있다고 해서 우연히 들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 교수님께서 소질이 있다고 하시며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유하셨어요. 그림을 그리는 게 재미있지만,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도 교수님께서 그림을 계속 그리라고 격려도 해 주시고 출품도 해보라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대회에서 입선하고 난 후 기분이 좋아지고 그 뒤로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기자 그림을 그리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생 한 마디로 행복하다는 점에서 그림이 좋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여유도 얻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작품을 하나하나 완성할 때마다 뿌듯하고요.

기자 현재 그림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학생 네. 서울 인사동 현대미술 여성 초대 작가로 활동하고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자 앞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학생 내가 건강을 유지하여 앞으로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또한 내 그림으로 보는 이들이 행복한 마음이 들도록 멋진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기자 끝으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학생 그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꼭 도전해 보십시오.

기자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말순 학우가 앞으로도 행복을 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홍성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송기은이었습니다.

김말순 학우님

‘청춘 극단’ 담당 교무부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엄 윤 숙 |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감사합니다! 선생님 ❶ - 최동길 선생님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는‘청춘 극단’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올해 8회를 맞이하였는데요. 올해는 ‘울고넘는 박달재’라는 연극발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극단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 최동길 교무부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최동길입니다. 학생부장과 대구 청춘 극단을 맡고 있습니다.

기자 대구 청춘 극단은 언제부터 담당하셨으며 맡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선생님 대구 청춘 극단은 2023년 3월 1일부터 맡게 되었고요.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부장으로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 당연히 맡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열정을 보고 ‘청춘 극단’을 잘 이끌어 가고 싶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대구 청춘 극단을 맡으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요.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반대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언젠가요?

선생님 극단을 담당하면서 어려웠던 순간은 다들 연륜이 있으신 만큼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풍부한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 확고함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소통의 어려움을 느꼈지만 1년 동안 서로 많이 조정해 나갔습니다. 반대로 이 분들은 연극에 대한 열정이 넘칩니다. 매번 최선을 다해 연극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기자 **이번에 연극발표회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청춘 극단 여러분들의 공연을 잘 마무리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 공연까지 하는 열정이 훌륭합니다. 청춘 극단 여러분들은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학창 생활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습니다. 앞으로 청춘 극단이 계속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청춘 극단이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대표적인 동아리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연을 축하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번 년도를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 엄윤숙 학생에게 한 마디를 해 주신다면요?**

선생님 지난 한 해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매사에 열의를 가지고 활동하며 웃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었어요. 앞으로의 나날을 응원합니다. 엄윤숙 파이팅! 멋진 대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앞으로 청춘 극단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많은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극단원들의 지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극 공연 관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Youtube 콘텐츠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자 앞으로 생각하시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발전 방향이 있을까요?

선생님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민하는 사항은 '학업'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많아 수업 수준에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데 부담을 가지지 않고 편하게 즐기면서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마디가 있으신가요?

선생님 지금처럼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분들 파이팅!

기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청춘 극단'을 통해 선후배 사이가 돈독해졌습니다. 이를 이어가기 위한 선생님,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대사를 외우고 무대 동선을 익히고 용기를 내어 무대에 오르며 올해 '울고 넘는 박달재' 발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도전하는 모습들이 아름답습니다. 단원분들 고생하셨고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상 대구고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엄윤숙 학생기자였습니다.

최동길 선생님

04

우리들의 이야기

시 ---------- 49

수필 ---------- 51

사랑합니다.

박 순 분 | 순천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순 순금처럼 빛나는 친구들.

천 천금하고 바꿀 수 없는 친구들

고 고생 끝에 이 축복을 누림.

제 재주가 많은 친구들 사랑해요.

주 주름도 훈장처럼 보이네요.

졸 졸업을 위해 마지막으로 추억을 남기는 시간

업 업덩이들이 여기에 다 모였네요.

여 여기에 모인 친구들 참말로 좋구만

행 행복이 따로 있나 지금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선생님과 나

배 창 환 | 동래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 선생님 >

통신학교 선생님은 청하면 오십니다.
과목마다 단원마다 청하면 오십니다.
백번이고 천번이고 청하면 오십니다.

시도때도 가림없이 청하면 오십니다.
한밤중도 새벽에도 청하면 오십니다.
누워서도 소일때도 청하면 오십니다.

훈계한번 않으시고 불평한번 않으시며
언제라도 오셨다가 언제라도 가십니다.
선생님의 자애로움 비할곳이 없습니다.

< 나 >

배워가는 그감동에 쌓인한은 녹아지고
눈도침침 귀도멍멍 돌아서면 잊혀져도
나도몰래 선비되어 글이되고 말이되네 .

돌맹이가 보석되니 못다빛내 한이구나
비바람에 못다피운 들꽃처럼 살아온나
꿈의화원 뿌리내려 향기로운 꽃피우리.

산전수전 공중전에 만고풍상 치렀으니
남았다면 천상제전 여한인들 있으랴만,
저녘하늘 지는해야 졸다가면 안되겠니.

우리 부부의 행복 도전

최 동 순| 춘천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아침햇살을 타고 번지는 된장국 냄새가 콧노래를 부르는 아내의 손끝에서 온 집안에 가득 풍겨 나오는 아침이다.

3년 전 그날은 우리 부부의 새로운 장을 여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오랜 망설임 끝에 어렵게 결단을 내린 우리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식, 내 나이 고희에 아내와 함께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니, 어린 소년처럼 밤잠을 설치고 뒤척이던 날이었다.

설렘과 두려움이 번갈아 일렁이는 부푼 가슴을 않고 정답게 아내의 손을 잡고 처음 교실에 들어서니 모든 것이 어색하고 생소하기만 하였는데 교무부장님이신 담임 선생님이 입학식 요령과 함께 중학교 시절 학생기자 경험이 있으니 또 다시 학생기자를 부탁하셨다.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는 식장에 걸린 표어가 내게 힘과 용기를 주었고, "그래,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늦깎이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을 시작으로 벌써 졸업반이 되었다.

4명의 중·고등학생 손자, 손녀들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 소년, 소녀는 신분도 망각한 채, 행복한 마음에 힘이 솟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열정을 쏟아내시는 선생님들의 인자하신 목소리가 늘 고맙고 정겨웠다.

컴퓨터를 통한 수업은 대면수업보다 이해가 어렵고 힘들어 늦깎이 공부가 열의는 있지만, 만사는 때가 있듯이 아내는 옛날처럼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다고 푸념이다. 배워도, 배워도 끝없는 컴퓨터의 생리, 그런 컴퓨터를 접하며 공부 도중 문제점을 요청할 때면 나 역시 얕은 지식에 컴퓨터 사용요령을 알려주지만 아내가 늘 속 시원히 터득하기란 쉽지 않았다.

시간이 나면 산과, 바다를 찾아 자연경관을 둘러보는 우리 부부의 취미생활은 늘 사진 속에 담아졌고, 마침 교과교재 표지 공모전에 우리는 그동안 찍어두었던 사진을 선별하여 함께 제출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당선이 되어 교과서에 실린 표지 모델사진을 보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더 열심히 노력하며 학교 수업에 재미를 느껴가고 있다.

늦게나마 배움이란 삶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동료 학우들과 배움을 통하여 즐거움을 함께 나누던 지난 3년 우리는 결석, 지각 한번 없이 학교에 다니며 더 나아가 내년엔 모두 대학 진학도 앞두고 있다.

학교생활을 통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두 손에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부부가 걷는 행복한 도전 속의 꽃봉오리는 이 가을을 불살라 놓을 예쁜 단풍잎보다, 5월의 장미보다 더 큰 열정과 꽃송이를 활짝 피우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다.

지켜지지 않는 배려석

노 순 민| 경원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할아버지에게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학생, 할머니에게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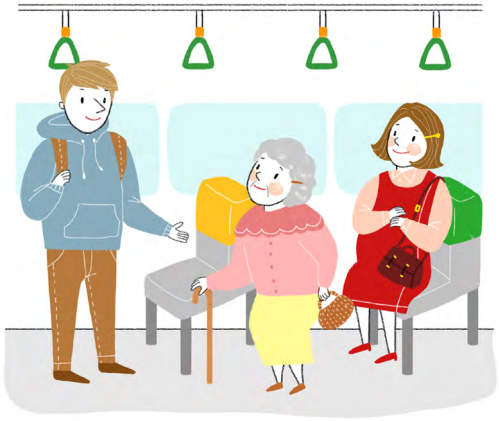
지팡이를 짚으셨는데도 걸음걸이가 위태로워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노부부가 시내버스에 오르셨다. 퇴근 시간과 하교 시간이 겹친 데다가 국화축제가 겹쳐서 비어 있는 좌석이 보이지 않아, 대학생 청년들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했다. 한 청년은 흔쾌히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지만, 다른 청년은 그 상황을 외면했다.

자리를 양보한 학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니 청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버스 안에 청춘 남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위태로운 어르신의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끝까지 모른 척했다. 다른 때 같으면 학생들에게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났을 텐데, 허리 압박 골절로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라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드릴 수가 없었다.

할머니께 그럴 수 없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셨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행여 넘어지실까 할머니의 팔을 붙들고 꼭 잡으시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연약한 어른을 대하는 야박한 인정에 마음이 아팠다.

청년들이 앉은 좌석은 분명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석인데 그 주인공이 눈앞에 있는데도 배려석을 차지하고 일어나지 않아 안타까웠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본 중년의 아주머니가 뒤늦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다. 버스 기사님께서 "자리를 양보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처럼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지성인이라 일컫는 대학생들이 배려석의 의미를 모르지 않을 테고, 그들에게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고 부모님도 계실 텐데 애써 외면하는 모습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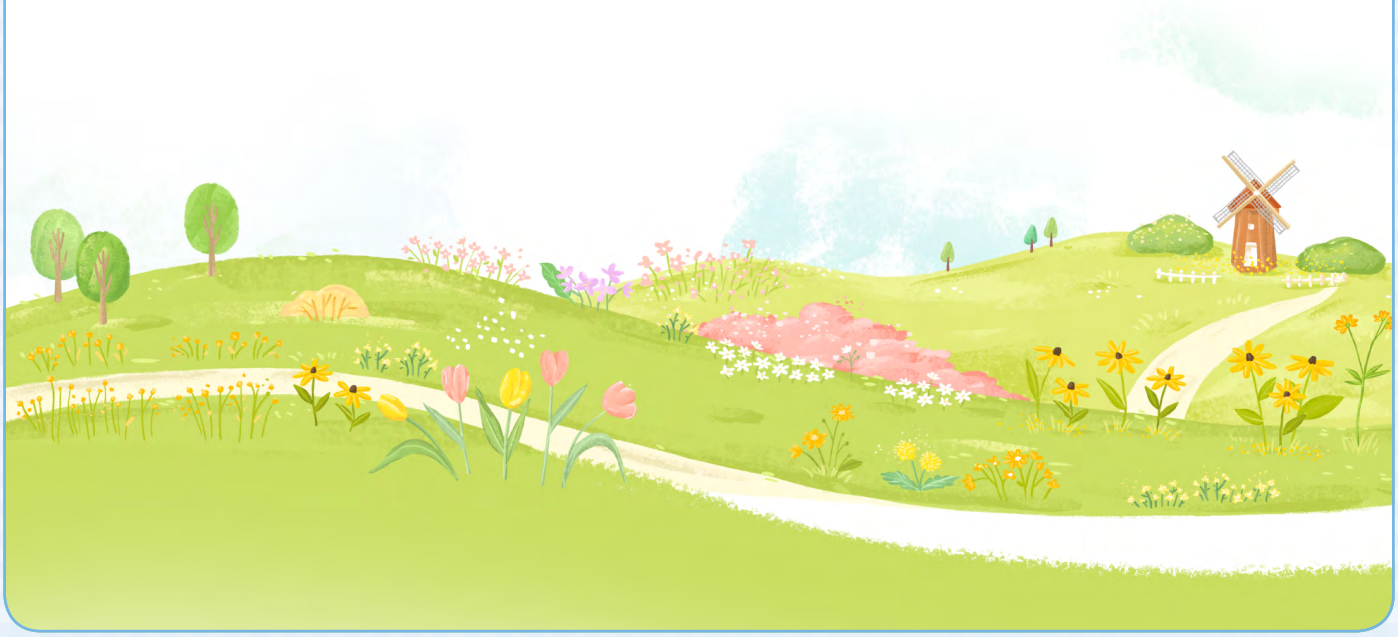
버스에 가득 찬 사람들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한 두 사람만이 배려석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 같고 행복해지는 법을 아는 것 같다. 어르신들께 자리를 양보한 두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참 행복을 맛보았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어릴 적에는 자리를 양보하는 건 기본이고 길가에서 어른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도 달려가서 들어드리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광경을 볼 수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이고 웃어른이 존재하는데, 어른을 대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달라졌다. 노쇠한 어른들은 양로원으로 모시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를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귀하게 모시고 사는 것 같다. 세상이 바로 서려면 웃어른과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배려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들이 당당하게 배려석을 차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걸 인지한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05

함께 성장하는 학교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10주년 축하 메시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10주년 축하 메시지) ---- 56

방송통신중학교 10주년을 축하드리며

김 선 옥 | 아현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안녕하세요. 아현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김선옥입니다.

옛말에 부지깽이도 바빠진다는 짧은 가을입니다. 또 가을엔 모두가 시인이 된다지요.
또 우린 학생이니 2학기 기말고사도 코앞입니다. 학교에 입학한 지 벌써 3년이 다 돼가네요.
방송통신중학교가 제 삶의 큰 의미로 와닿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Q 나에게 방송통신중학교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적으니,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지혜도 아는 양만큼 뿐이었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하여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넓어지고 나에 대한 깊이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Q 방송통신중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특별했던 순간

학생기자는 전국의 방송통신중학교 소식도 접할 수 있고 '우리끼리 수다방'에서 다양한 소식을 공유할 수 있어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3년이 마무리 되어가 아쉽습니다.

Q 50주년을 맞이할 방송통신중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벌써 10주년이 된 방송통신중학교입니다. 앞으로 50주년 즈음에는 AI 시대도 지나 사람이 해야 하던 일들이 점차 줄어들텐데 기계를 조작하는 것은 역시 사람의 몫이니 사람들도 더 똑똑해져야 기계를 제어할 수 있을 테지요. 50주년의 방송통신중학교는 미래를 대비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일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배움을 이어나갈 방송통신중학교에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아직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지금이 곧 시작할 때라고 경험을 빌려 나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할 때라 말하고 싶습니다. 또 열성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내일이면 다 지워지기도 하지만 깨우치는 매일이 무척 행복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서로를 사랑하는 밝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김 두 봉 | 진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진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김두봉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가 벌써 10살이 되었네요. 개교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Q 나에게 방송통신중학교란?

"꿈을 현실로" 변화시켜 준 계기였죠. 입학 전, TV 광고로 방송통신중학교를 접하고부터 저는 고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남에게 들어낼 수 없었던 학력의 콤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을지, 내가 3년 동안 잘 해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년 후, 용기 내어 학교에 문의를 했더니 예상외로 선생님께서 친절한 안내를 해 주셨고, 그 말씀에 힘입어 당당히 입학원서를 제출했던 것이 "꿈이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Q 방송통신중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특별했던 순간

입학 예비 소집이 있던 날, 선생님의 여러 안내 말씀과 더불어 입학식 날에 입학생을 대표하여 소감문 발표를 해볼 사람을 물어보셨고 제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왠지 정중한 정장의 차림과 깔끔한 외모였다고 학우들이 느꼈었나 봅니다. 먼저 손을 들었던 분들 모두가 저에게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30년 동안 사회단체(JC.청년회의소)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 행사의 진행과 사회를 전담해오던 저의 경험이 또한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짧은 발표에 많은 선배님들과 입학생, 가족들의 눈물의 장을 만들었고 몇 차례나 박수를 받았던 그 순간은 제 일생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1학년 반장이 되었고 2학년에 올라서도 반장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평소 몸에 밴 봉사의 일념으로 늘 학우들의 편의와 실천의 각오로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은 항상 저의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시험 날은 풀이를 알려주어 학우들의 성적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 저는 전교 학생회장을 맡게 되었죠. 다른 학우님들의 비해 일찍 등교하여 교통 안내를 하면서 밝은 미소로 아침 인사를 나누는 것은 하루의 학교생활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 드리는 계기가 분명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과의 소통에 격의 없는 대화들은 학교생활의 보람이요, 큰 힘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학생회를 소집하여 '본교 불우 학생 운동화 한 켤레 선물하기'를 제안했더니 만장일치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전교생들의 참여로 (운동화 30켤레 정도) 큰 보람이 있었던 일도 기억납니다.

Q 방송통신중학교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고목에 새순" (古木) 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65세의 노인세대에 새로운 희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요? 방송통신중학교는 배움에 목말라하는 고목에게서 새로운 새순을 돋아나게 하는 비법의 전당이 분명합니다.

Q 50주년을 맞이할 방송통신중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의 조류에 40년 이후의 모습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앞선 AI현실을 초월한 수업방식이 되지 않을까요?

Q 앞으로 배움을 이어나갈 방송통신중학교에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예비 후배님들께

지난 날의 저처럼 학벌과 배움에 갈증이 있다면 과감히 용기를 내십시오! 검색창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벌써 절반의 성공입니다.

저는 입학 전, 알파벳은 물론 대·소문자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거리 영문 간판이, 브랜드의 이름이, 차량의 종류들도 이제는 자신 있게 읽으면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화기 앱을 열어 내 것으로 만들곤 합니다.

참으로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진리에 공감 또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깨는 가벼워집니다. 6년 후의 지금, 저는 2주 후의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배움을 이어나갈 방송통신중학교에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존경하는 선생님께

방송통신중학교는 정규 학교와는 달리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탁월한 재능과 지식들로 일깨워 주시려는 선생님들의 열정, 참으로 어떤 말씀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감사함은 하늘과 같습니다.

요즘같이 '가족 사랑주의' 사회에서 일요일을 배움에 목말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학생들, 부모님 같은 학생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애쓰시는 그 모습이 또 하늘과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계시니 방송통신중학교가 10주년을 성공적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Q 방송통신중학교 10주년 축하 메시지

일찍이 방송통신중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 여러분들께서 계시니 지금의 우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범적인 선배님들의 활동 또한 우리들의 긍지요, 자부심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던가요. 요즘은 1년에 강산이 변한다는 속언이 있지요. 그렇다면 한 세기동안 방송통신중학교를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선생님과 선배님, 이 시간에도 학업에 여념 없으신 동료 학우 한 분 한 분들께 10주년을 맞이한 영광의 큰 꽃다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리더로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고 인생 2막을 펼치게 해 주심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큰 감사와 경의, 그 어떠한 고마움의 단어를 드려도 부족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국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반딧불 학생기자님들! 저를 포함하여 봉사 정신으로 자기 학교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들이 있기에 또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을 맞이한 이즈음에 함께 축하와 격려의 꽃다발도 아끼지 맙시다. 축하드립니다.

방송통신중학교 10주년을 기념하여

박 정 순 | 경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안녕하세요. 경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박정순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가 벌써 10주년이 되었다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Q 나에게 방송통신중학교란?

"새롭게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50년 넘게 가슴 속 깊은 곳에만 묻어두었던 배움의 한이 있습니다. 5년 전 어느 날 막내딸의 권유로 한달음에 방송통신중학교로 달려가서 원서를 쓰고 입학하던 날, 운동장에 멍하니 서서 한참을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한없이 울던 그때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교실에 앉아 선생님의 말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눈 크게 뜨고 귀 기울여듣고 밤을 새워가며 한 시험공부, 학우들과의 재잘거림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꿈만 같았던 날들. 나를 다시 돌아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밝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남을 배려하며 이해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도 배울 수 있어 방송통신중학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사는 나를 보면서 방송통신중학교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Q 방송통신중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특별했던 순간

입학하기 전 학교에서 소감문을 써서 내라고 하여 잘 쓰지도 못하는 글이지만 나름 열심히 적어 선생님께 드렸는데 입학식 날 갑자기 나의 이름이 불리면서 소감문이 당첨되었다고 앞으로 나와서 소감문을 읽으라고 하더라구요. 앞에 나가긴 나갔는데 막상 강당 위에 서니 눈앞이 캄캄, 몸은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지금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 중환자실로 바로 가서 목숨이 살아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학교도 다니지 못할까봐 땀을 비 오듯이 흐르는 것도 잊고 두 손 부여잡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살면서 나에게는 가장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Q 방송통신중학교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최고의 선물"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좋은 선물이 넘치고 많이 있겠지만 나에게 최고의 선물은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한 날이었습니다

Q 50주년을 맞이할 방송통신중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으로 인해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모든 것이 더 편리하고 사람이 하는 일도 기계나 AI가 거의 다 사람을 대신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부만큼은 그 어느 것을 떠나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쓰고 만들고 배움을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도 많은 기계들과 AI가 들어와 학교 일을 대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양면의 동전같이 학교도 많이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배움을 이어나갈 방송통신중학교에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예비 후배님들께

지금 이 순간에도 예비 후배님들 학교에 오는 것을 망설이고 계시는지요?

저도 입학이 망설여지고 두려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용기를 내어서 학교의 문을 한 번만이라도 두드려 보십시오. 학교는 절대 두려운 곳도 무서운 곳도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서 더 큰 세상으로 예비 후배님이 무궁무진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곳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 밖으로 나가 마음껏 꿈들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들과 처음 마주한 날 긴장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눈 녹듯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선생님 눈도 볼 수 있었고 선생님의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긴장하던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정하게 우리를 반겨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학교도 즐겁고 신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의 휴식도 마다하고 학교로 출근하셔서 최선을 다해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바치고 싶습니다.

학교를 떠나더라도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새겨 좋은 곳에 좋은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늘 하고자 하는 바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Q 방송통신중학교 10주년 축하 메세지

방송통신중학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많은 선배님들께서 방송통신중학교를 졸업하여 각지에서 활약하고 계시고 더 꿈을 가지고 좋은 일들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듣고 선배님들이 가시는 그 길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학교 과정도 거뜬히 이겨내시고 각지에서 방송통신중학교를 빛내고 계시는 모습들에 후배인 우리들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선배님들이 있기에 10주년이라는 짧지 않은 긴 세월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배님들! 곧 우리 후배들도 선배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니 그 자리에 굳건히 지키고 계셔주십시오. 방송통신중학교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선생님, 선배님, 후배님 모두 다시 한번 1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를 드리며 변함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방송통신중학교를 사랑하고 아껴 주십시오. 우리들도 변치 않고 방송통신중학교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여 영원하라!

방송통신중학교를 응원합니다.

배 창 환 | 동래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안녕하세요. 동래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배창환입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용감하게 방송통신중학교 학생으로 시작해서 어리버리했던 기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3학년이 되고서야 적응되어 학생기자가 되었고, 좋은 글도 많이 읽으며 잘 써보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Q 나에게 방송통신중학교란?

일상생활과 함께 학업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과정이였으며, "나의 3씨(글씨, 말씨, 솜씨)"를 매우 훌륭하게 교정해 준 변환처였습니다.

Q 방송통신중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방송통신중학교 1학년 때 천안에서 열린 학예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내가 이 훌륭한 대회에 참가했다는 점과 한자 부문에 장려상으로 입상하던 때가 가장 감격적이었으며 특별하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새삼스레 가슴이 뛰고 코끝이 찡합니다.

Q 방송통신중학교를 5글자로 표현한다면?

방송통신중학교를 5글자로 표현하면 “탁월한 선택”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용감하게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Q 50주년을 맞이할 방송통신중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방송통신중학교의 미래에 대한 모습은 점차 사이버교육시대로 변환될 것으로 미루어 당연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은 공부 시기를 놓친 만학도가 대부분이지만, 50년 후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일 것이며, 지금보다 더 훌륭한 영상시스템으로 수업할 것으로 그 모습을 예상합니다.

Q 앞으로 배움을 이어나갈 방송통신중학교에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예비 학우에게는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며 고민하기보다 그냥 용감하게 입학하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쉽게 배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수학 공식을 여러 가지의 다른 문제로 계속 풀어가는 것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Q 방송통신중학교 10주년 축하 메시지

이제까지 방송통신중학교를 이끌어주신 한국교육개발원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이 다져주신 고운 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더 넓고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음에 열렬히 응원합니다.

06

2023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대상 수상작 및 수상소감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 -------- 69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 76

청소

구 본 례 | 홍성여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문예(시)

비가 내립니다.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는
세찬 비가 내립니다.

지붕 위 초목들 검은 아스팔트
길 위에도
비가 내립니다.

내 긴 세월의 인생에도
늘 무언가에 목말랐던 마음을
가뭄의 단비처럼
비가 내립니다.

나는 오늘도 청소를 합니다.
새로움을 받아들이기 위해
윤을 내어 봅니다.
슬픔도 원망도 모두 닦아버리고
새로운 문을 열어봅니다.

행복이라는 빛나는 세상을
지식이라는 작은 기쁨을
목말랐던 묵은 때를 벗겨내고
반짝이는 미래를 향해
오늘 열정 가득한
학문의 창을 닦습니다.

수상소감

우선 부족한 저의 글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상 소식을 듣는 순간 이것이 꿈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 3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아 너무나 기뻤습니다. 선생님들의 열정 가득한 가르침 늘 잊지 않겠습니다. 축제의 한마당 제 인생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문예(수필)

맛

김 이 영 | 광명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60년 살다 보니 인생의 맛을 느끼는 것 같다. 인생을 살다 가보니 제탈 길도 있고 쭉 뻗어있는 고속도로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사잇길도 있듯이 인생사 사는 맛도 이와 같은 듯하다. 두 아들을 낳아서 모유 먹여 기르는 재미를 마치 내 인생의 고속도로인 양 재미있고 행복하고 황홀하고 달콤한 맛이 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제탈 길로써 어렵고 힘든 시기를 두 아들들과 헤어져 지내는 게 쓴맛이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하고 즐거웠던 날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마냥 어린 아이로만 지낼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이 아닌가 싶다. 지금도 힘들고 모든 일이 낯설고 괴로울 때 어린 시절의 나를 생각하며 이겨내곤 했다.

소꿉친구 네 명이 가까운 야산에서 술래잡기 하며 봄이면 온 수풀을 뒤지며 산딸기, 솔방울 열매며, 오디며, 산에 나는 열매를 돈 안 주고도 맛볼 수 있었고, 보리타작할 때는 보리 이삭을 주워 먹기도 하고 달래, 쑥 캐며 지내기도 하며 고사리도 따고 그것들에 지치면 고무줄놀이, 그때 당시에는 신작로에서 조그만 돌을 주워다가 공기놀이도 하고, 판 피기도 하고, 오징어 놀이도 하고 너무 재미있고 돈 안 드는 놀이가 많아 어렸음에도 너무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았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인생의 최고의 단맛이 아닌가 싶다.

그뿐이랴, 야산이다 보니 온 산을 뒤지듯이 어른들의 묘소에서도 미끄럼타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뛰어놀기도 하고 나무 타는 건 타잔보다도 더 잘해 우리 키보다 몇 배나 되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 놀기도 했다. 널린 게 많은 넓은 이파리를 따서 장사 놀이를 한다고 돈을 센다고 이파리를 자그마한 손으로 한 장 한 장 세는 기분 지금도 짜릿하다. 한 주먹씩 이파리를 따면 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놀다 보면 누구야 밥 먹어라, 한 분씩 어머니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도 아랑곳없이 노는데 팔린 네 아이들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다른 곳을 옮겨가 이산 저산을 돌아다니며 더 신나게 뛰어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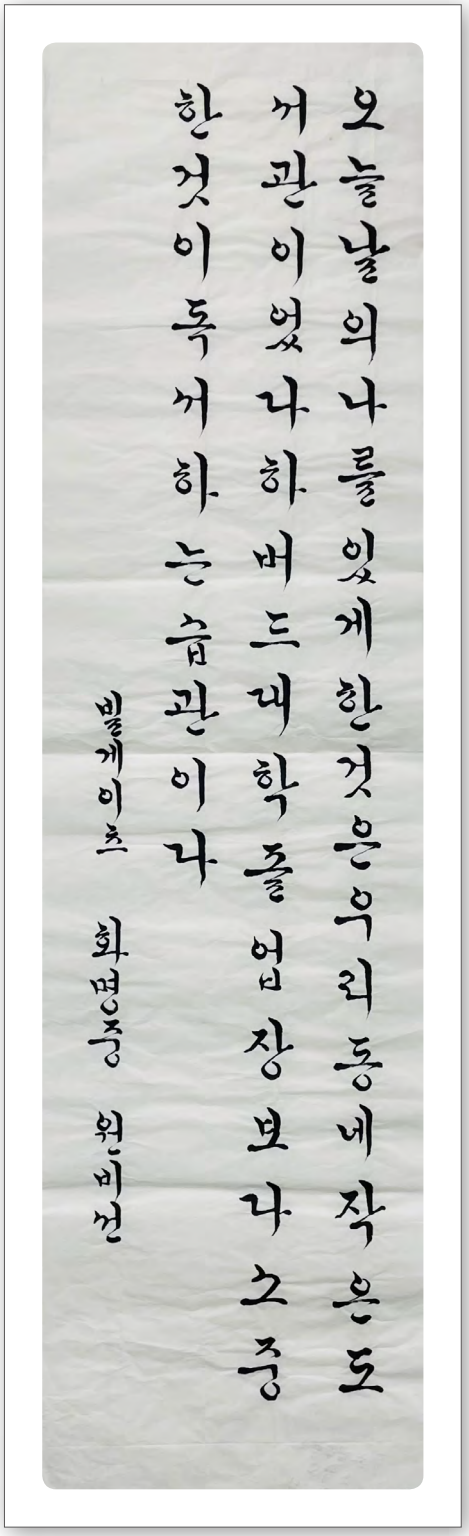
해가 질 때로 지고 어두컴컴해야만 집으로 돌아간다고 어깨동무하고 한 아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집에 도착하면 다시 다른 친구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다시 어깨동무를 하고 나의 집을 데려다주면 나는 또 다른 아이들을 집에까지 데려다준다고 뒤돌아 어깨동무를 하고 다시 돌린다. 이러기를 몇 번째 하고서야 한 친구를 집으로 들여보내면 이놈의 지지배가 밤늦게 놀고 이제 들어온다고 매타작을 하는 걸 보고서야 절절거리며 집으로 돌아온다. 그다음 날 보면 엉덩이와 팔다리 등이 새파랗게 자국들이 생기는 일이 많다. 그 시점에는 다소 얌전해지다가 며칠이 지나면 언제 어머니에게 맞았냐는 듯이 또다시 우리들의 병정 놀이와 천사 놀이가 시작된다. 정말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어리지만 인간미가 넘치는 따뜻함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얼마 전에 일어난 꿈같은 동화 속에 살다 돌아온 꼬마 병정 같다.

그 친구들을 50년 넘어서 얼굴을 보게 되었다. 한 친구는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고, 한 친구는 3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생겨 지금 많이 아프다. 그리고 네 명의 친구 중에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 내 친구만 봐도 인생사 굴곡진 세월 쓴맛을 겪고 있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어린 시절 그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이 있기에 난 달콤한 초콜릿 맛으로 산다.

수상소감

어제 새벽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용꿈이요. 하늘로 팍 올라가는 용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전날 축제에서 상을 하나 탔기에 이번에 상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큰 대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무부장 선생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인솔해 주시는 과정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원 비 선 | 화명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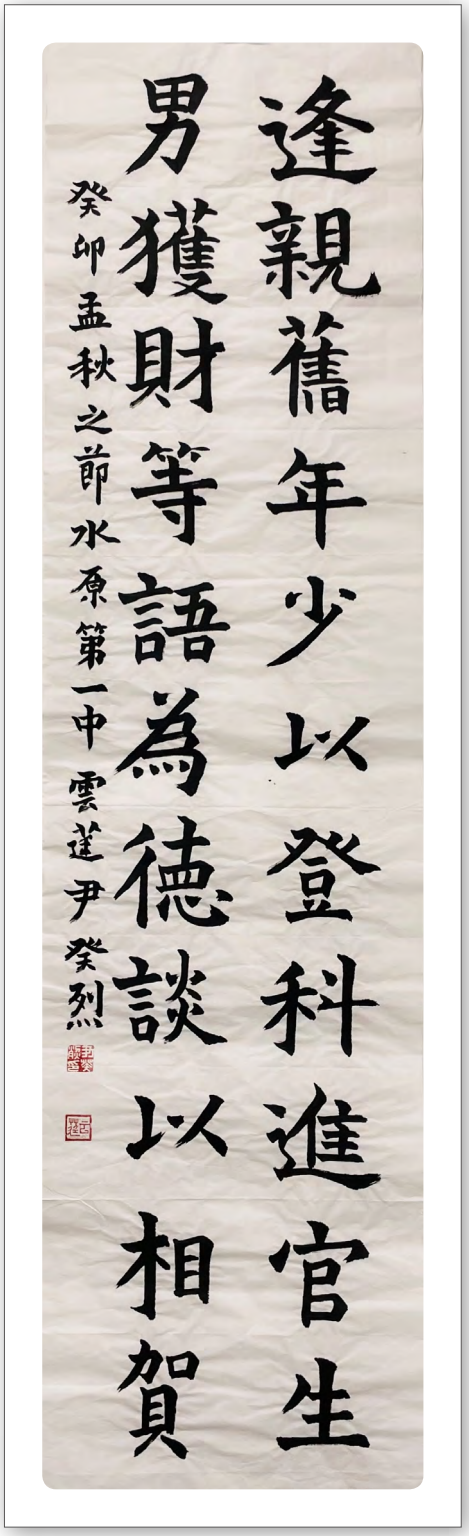
대상

서예(한글)

수상소감

가족의 도움으로 방송통신중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등교할 때마다 남편이 매일매일 데려다주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번에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격스럽고, 이 영광을
가족들에게 돌리겠습니다.
가족들 사랑합니다.

윤 계 열 | 수원제일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대상

서예(한문)

수상소감

좋은 교육정책에 만학의 꿈을 이루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하여 꿈에 그리던 교정을 거니는 일도 기쁜 일인데, 학예경연대회에 참여하여 서예 부문에서 대상을 받다니 무척이나 기쁩니다.

60여 년 전 국민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서예부에서 먹을 갈며 습자지에 한 자 한 자 배웠던 것이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서예 공모전에 출품도 해 보았지만 그 때마다 나의 소속은 집 주소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수원제일중학교 1학년 3반 8번 윤계열이라는 떳떳한 소속을 걸고 출전하였다는 것이 무한히 기뻤습니다. 끝으로 암 투병 중인 남편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것 같아 이 또한 많이 기쁩니다.

선생님을 비롯하여 학우님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상

신 주 연 | 경상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회화(수채화)

수상소감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너무 놀랐는데요. 너무 기뻤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여행한다는 기분으로 학예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열심히 그림 그렸는데요. 이렇게 뜻밖에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결석하지 않고 배움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대상

하 지 연 | 경상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회화(소묘)

수상소감

모든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송통신중학교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방송통신중학교는 산소와 같고 나를 다시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전국에 있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모두 열심히 하세요.

웃음과 울음(옹이꽃)

최 동 순 | 춘천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대상

문예(시)

두 팔로
다 안을 수 없는 소나무
비바람 찢어놓은 자리에
아픈 옹이 여럿 박혀있다.

울퉁불퉁 모양새 없이 자라난 흙
그러나 굳어져 꽃이 된 옹이

낙엽쌓인 벤치에 앉아 정나누던 이들
어여쁘다 만져보고 보듬어 주는데

늘 아린 옹이 때문에 울음 짓던 소나무
햇살 아래 눈 반짝이며 밝은 웃음 짓는데
정원의 새들 날아와 축하 노래 불러준다.

이보다 더 늙은 소나무는
박달보다 더 단단한 옹이가 있어
비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잉어 비늘 보다 지친 피부의 소나무
달 밝은 밤이면 호수네 내려앉자
한서린 울음소리 그 누가 들을세라
저 하늘 별을 세며 자맥질 한다.

더 꿋꿋한
옹이 꽃을 깨우기 위해
잔잔한 호수에 마음을 삭인다.

수상소감

먼저 많이 부족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합니다. 시를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손바닥에 굳은살이 소나무의 옹이꽃으로 되어 확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울음과 웃음과 섞어 옹이꽃을 시로 지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저에게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보름달 같은 존재입니다.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보름달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파이팅!

문예(수필)

선생님

이 경 옥 | 홍성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나는 두 분의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다. 서울 영등포에서 2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을순 선생님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충남 예산에 김석호 선생님이시다.

먼저 2학년 담임을 하셨던 김을순 선생님께서는 키가 작달만한 하시고 성품이 좋으시며 인자하셔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신 분으로, 육성회비를 못 낼 때 대신 내어 주시고 힘들어도 학교는 꼭 다녀야 한다고 힘을 주신 분이시다. "너는 이것을 잘하는구나! 글짓기 대회를 한번 나가볼래?" 이리하여 글짓기 대회를 나갔고 그때마다 상을 타와 선생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우리 집이 더욱 어렵게 되어 충남 예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다시 만난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으로 김석호 선생님이셨는데 역시 키가 작고 몸집이 있으신 인자하신 선생님이셨다. 난 키가 선생님처럼 작은 관계로 1분단의 맨 앞에 자리에 앉았고 어색해 하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 그 당시 학교에서는 급식빵이 나왔는데,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드시지 않고 "경옥아 이거 먹고 빨리 키 크거라 나처럼 작지 말고..." 하시며 선생님 빵을 주시곤 하셨다.

5학년 때 담임이셨던 선생님은 그대로 6학년 때도 우리반을 맡으셨다. 6학년 2학기가 되자 모두들 중학교 원서를 내고 학교를 가는데, 난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되어 원서를 내지 못했다. 2학년 때도 육성회비를 선생님께서 내주셨고 5학년, 6학년 때에도 선생님이 내주셨는데 무슨 수로 중학교를 갈 수 있느냐며 아버지는 역정을 내시며 지지배를 중학교 보내서 뭐 하느냐며 소깔이나 베어다가 소나 먹이라고 하셨다. 그때 선생님께서 아버지를 설득시키려고 우리집 문턱을 수도 없이 넘으셨지만 그때마다 완광히 반대하시는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으셔서 하는 수 없이 선생님께서는 나를 선생님 댁에 데려가기로 아버지와 합의를 하셨다. 선생님께서 너무 아깝다며 중학교를 경옥이는 가야 된다고 선생님 댁으로 나를 데려가셨고 가서 보니 선생님 댁 선생님, 어머님, 사모님과 아들 4명이 있었다. 그리 넉넉하지도 않으신 선생님 댁에 갔는데

왠지 불편했지만 중학교를 가야 한다는 내 욕심 때문에 모르는 척 견디기로 마음 먹었다. 어느 날, 잠이 일찍 깨서 눈을 뜨니 아침 안개가 자욱했고 아직은 어둠이 내려앉은 이른 시간에 선생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셨다.

살그머니 일어나 뒤따라가 보니 선생님께서 밖에 있는(옛날 변소) 잿간, 벽에 걸려있는 물지게를 지고 양쪽에 물통을 지시더니 밖으로 나가셨다.

대체 무얼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뒤따라가 본 난 깜짝 놀랐다. 남의 집 화장실(변소)을 푸시고 학교에 출근하시는 선생님을 뵈면서 도저히 선생님 댁에 있을 수가 없어 난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선생님 댁에서 나와버렸다.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가르치시려고 형편도 어려우신데 남의 집 변소를 몇 집 푸시고 출근하시는 선생님 댁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 선생님 댁에서 나가도 공부는 꼭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나와서 살기 바빠 공부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방송통신중학교에 들어가 내가 3학년이 되어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그때 선생님 연세가 89세!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늦게 찾아뵈어서..."하고 선생님의 손을 잡자 선생님께서는 "공부는? 학교는?" 하시며 물으셔서 방송통신중학교 졸업반이라고 말씀드리니 너무 기뻐하셨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고 선생님을 제일 먼저 찾아갔다. "훌륭하구나, 잘했다, 그래 고생했어~"하시며 눈시울을 적시시는 선생님과 실컷 울었다. 이제 난 고3 졸업생이다. 졸업하면 졸업장 가지고 선생님을 제일 먼저 찾아뵈겠다고 약속했는데... 선생님께서 두 달 전에 돌아가셨다.

너무나도 감사한 선생님! 잊지 못할 선생님이시다. 하늘에서도 오늘 이 제자가 학예경연대회에 온 것을 축하해 주시고 계시리라 믿으며 졸업장 받는 날 선생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함께해 주신 김을순 선생님!

김석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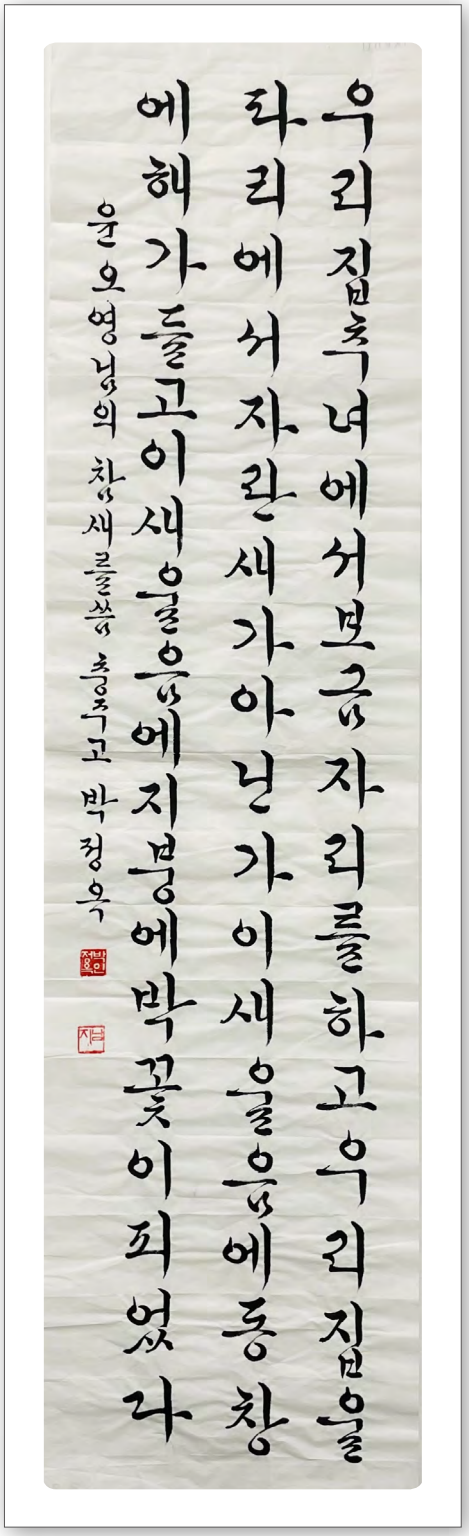
수상소감

대상 수상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도와주신 선생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방송통신고등학교란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학교까지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열중하고 대학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 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들도 꼭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박 정 옥 | 충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대상

서예(한글)



수상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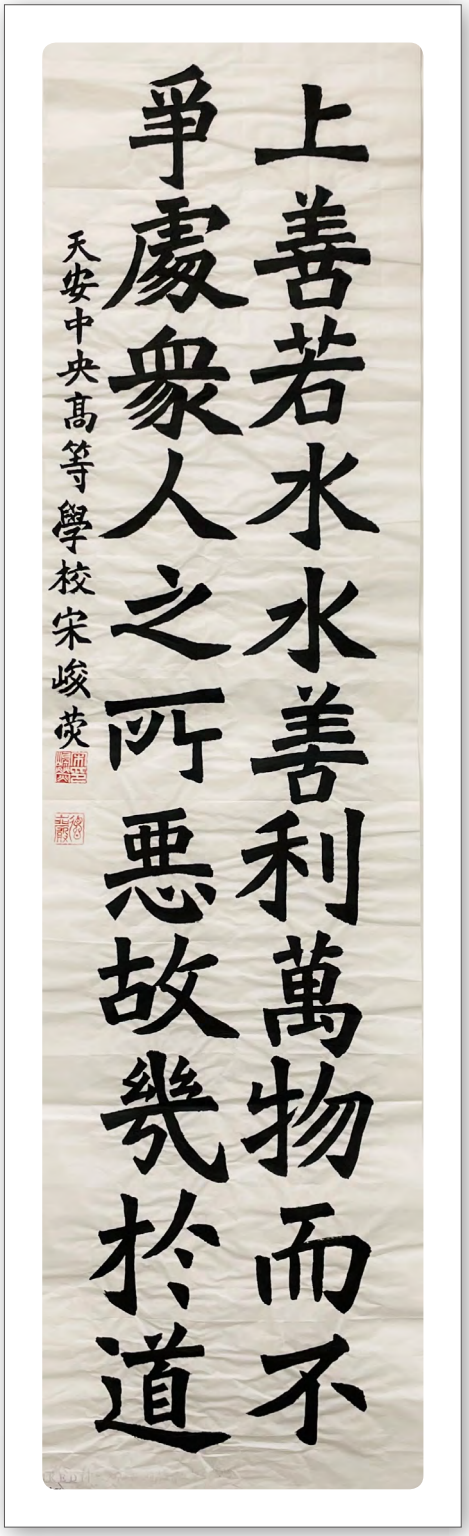
뜻밖의 대상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어 내 생애 희열을 체험한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떠밀리듯 소망과 목표를 잃고 소박하게 삶을 살아오면서 가슴 한쪽에 배움에 대한 목마름에 갈증이 있어 틈나는 대로 먹판과 붓을 벗하며 허한 가슴을 채우고 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에 발견한 나의 인생'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꿈이 나에게 영양분을 남겨주었습니다.

70대 중반인 지금 대학도 꿈을 꾸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준 형 | 천안중앙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대상

서예(한문)



수상소감

열심히 하다 보니 상도 주시네요. 처음에 학교를 못 다녀서 이름을 잘 써보려고 한문을 배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문을 다시 배우게 되었고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면서 좋은 기회로 상까지 받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박 경 임 | 서현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회화(수채화)

수상소감

그림을 치매 예방적 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네요.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다시 젊음을 찾게 되는 기분이네요. 방송통신고등학교 파이팅!

대상

정 수 연 | 경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회화(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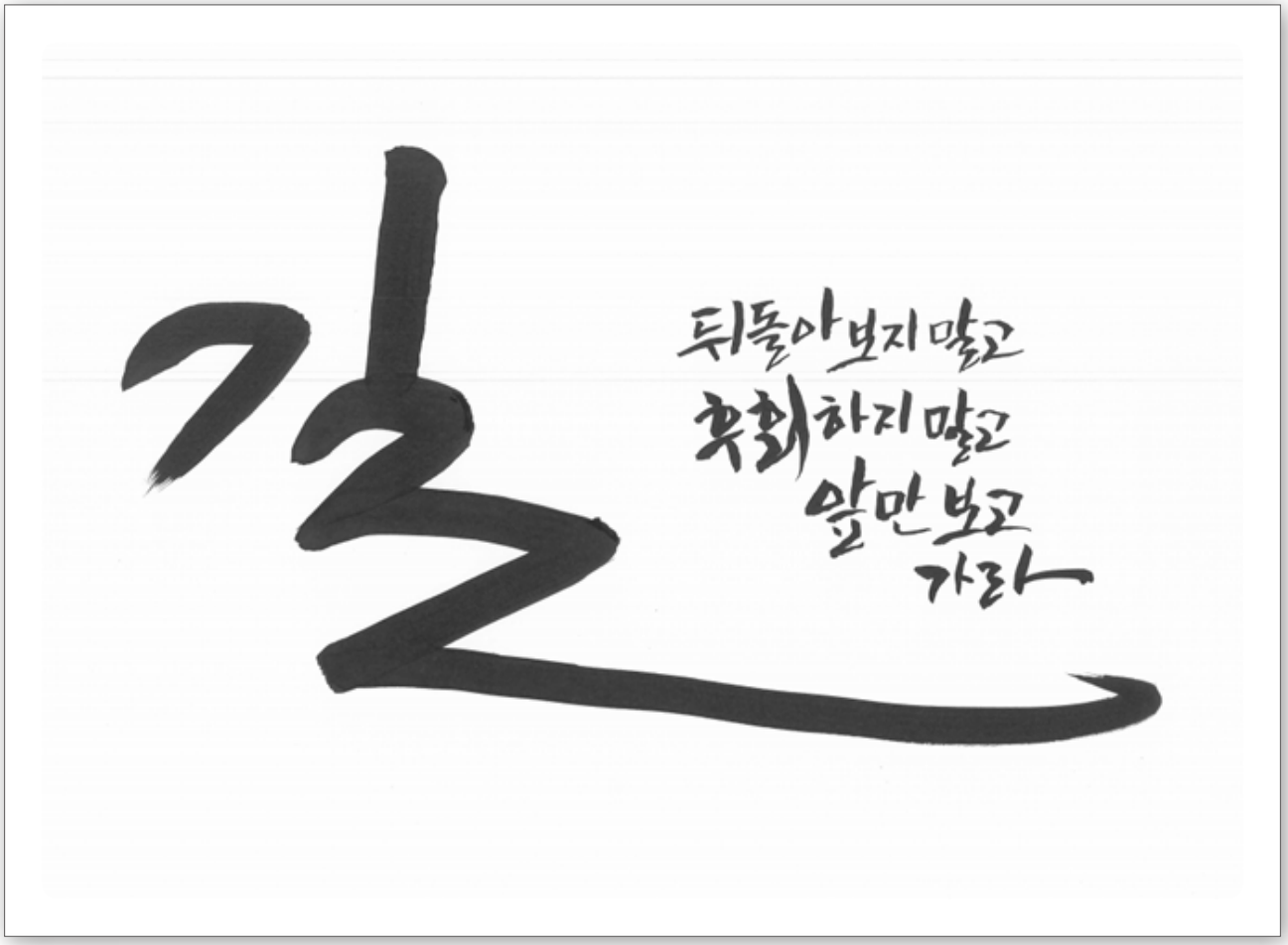
수상소감

전국적으로 나온 대회는 처음인데, 대상이라는 뜻밖의 큰 상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오겠다고 다짐한 순간부터 학예경연대회에 참여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회에 참가해 수상까지 하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조 정 애 | 수원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캘리그라피



수상소감

모두 할 수 있다. 내가 인생의 가는 길에 뒤돌아보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앞만 보고 가자! 나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파이팅!

07

센터 소식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소식 ---- 85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 소식

소식1

2023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개최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전국 66개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9월 16일(토)~17일(일)에는 2023년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 10월 21일(토)~22일(일)에는 제42회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공모전('21~'22)으로 대체 운영된 학예경연대회를 4년여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였다.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는 총 21개의 방송통신중학교 재학생 및 교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총 284명이 참여하였으며, 제42회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에는 총 34개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 및 교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총 363명이 참여하였다.

방송통신중학교 6개 경연 부문(문예(시, 수필), 서예(한글, 한문), 회화(수채화, 소묘))과 방송통신고등학교 11개 경연 부문(문예(시, 수필), 서예(한글, 한문), 회화(수채화, 소묘), 음악(국악, 가곡, 기악), 영어말하기, 캘리그라피)으로 경연이 치러졌으며, 경연 외 부대행사로 '어느 가을날에 발견한, 빛나는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문화제를 운영하여 교사와 학생이 어우러져 화합의 장을 펼쳤다.

아울러 경연 부문별 우수 학생 시상을 위한 시상식을 운영하였는데, 총 265명(방송통신중학교 100명, 방송통신고등학교 165명)에 대해 대상(교육부장관상), 금·은·동·장려상(한국교육개발원장상), 특별상(시·도교육감상)을 수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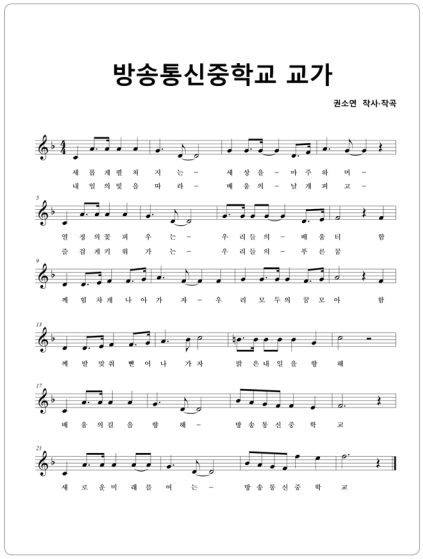
소식2

2023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종합상담 담당자 하반기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11월 23일(목) 휴먼트리코칭센터 소속 이여희 강사를 초빙하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종합상담 담당자 하반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육에는 종합상담 업무 담당자 14명이 참석하여 종합상담 업무로 발생하는 감정노동의 이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및 스트레스 관리 전략 수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 루틴 만들기 등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담의 질 제고를 도모하였다.

소식3

2023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가 제작 및 배포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교가를 제작하여 전국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배포하였다. 방송통신중학교 교가는 방송통신중학교을 상징하고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교가 제작을 통해 방송통신중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 및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신규 제작하였다. 또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가는 기존에 있던 교가 음원 파일의 노후화에 따라 음질 보강을 위하여 재녹음을 진행하였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가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입학식 및 졸업식 등 각종 학교 행사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소식4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10주년 기념
「2023년 방송중·고 연구·사업 성과 포럼」 개최

한국교육개발원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1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 한 해 동안 수행한 방송중·고 연구·사업 성과 공유를 통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지난 11월 24일(금)에 서울에서 포럼을 개최하였다. 두 가지 세션(KEDI 세션, 연구학교 세션)으로 나뉘어 미래 교육 환경 및 교육정책 변화에 대응한 방송중·고 발전 방향과 운영 방안으로 진행되었다. KEDI 세션으로는 방송중·고 스마트 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방송중·고 디지털 학습 콘텐츠 설계 방안,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그에 따른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학교 세션으로 방송통신중학교는 '방송통신중학교 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2차년도)'을,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적용 방안(1차년도)'의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도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총 74명이 참석하여 미래 교육 환경 및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방송중·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U-반딧불

2023 VOL. 99

기사제보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화명중 김영조 기자, 남춘천중 이순세 기자, 광명중 곽배숙 기자,
홍성여중 이은순 기자, 경원중 노순민 기자, 아현중 김선옥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강릉제일고 장서윤 기자, 전남여고 김순례 기자, 천안중앙고 유시현 기자,
상동고 이순호 기자, 경남여고 박정순 기자, 제주제일고 김혜경 기자,
춘천고 최동순 기자, 원주고 정선미 기자, 홍성고 송기은 기자,
대구고 엄윤숙 기자, 동래고 배창환 기자, 진주고 김두봉 기자,
수원여고 조정애 기자

방송통신중학교 재학생

경원중 이춘자 학생, 경원중 김원자 학생, 홍성여중 구본례 학생,
광명중 김이영 학생, 화명중 원비선 학생, 수원제일중 윤계열 학생,
경상중 신주연 학생, 경상중 하지연 학생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

마산고 김원용 학생, 홍성고 김말순 학생, 순천고 박순분 학생,
홍성고 이경옥 학생, 충주고 박정옥 학생, 천안중앙고 송준형 학생,
서현고 박경임 학생, 경남여고 정수연 학생

뉴스레터 개발·기획

편 집 장 손찬희(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

편집총괄 황은희(방송중·고운영센터 소장)

편 집 인 김수진, 류현아, 김경수
(이상 방송중·고운영센터 기획·홍보팀)

한 학기 동안 기사를 게재해주신 모든
2023학년도 방송중·고 48명 학생기자와 재학생 분들,
수고해 주신 방송중·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